

# 광주체육회 대대적 조직 개편...법무·스포츠마케팅 첫 도입

기능 중심 개편 일하는 조직 만들고 선진 체육행정 도입 내실 다지기 전문·생활체육 상생 발전도 강화...오늘 제2차 인사위 열고 심의 의결 전갑수 회장 "개혁·변화 통해 체육인에 자부심 주고 시민 건강 챙길 것"

광주시체육회가 개혁과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23일 광주시체육회(회장 전갑수·사진)에 따르면 시민과 체육인을 위한 선진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약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부서 신설과 직원 재배치 등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광주 체육 중흥기를 열어 체육인들에게 자부심을 주고 시민 건강과 행복을 챙기겠다"는 전 회장의 약속을 추진할 시스템이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차·2분부·4부·11팀·1연구원인 현 체제는 유지하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선진 체육행정을 도입, 내실을 다지겠다는 방침이다. 전 회장이 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부서를 신설, 강화하게 두드러진다. 체육회 화합을 다지기 위한 전문·생활 체육 상생발전 기능 강화, 법무, 스포츠마케팅 기능 신설

이 대표적이다. 법무 부문은 선수, 체육회 등을 상대로 한 법적 분쟁과 현안에 대비하는 기능을 맡는다. 스포츠 마케팅은 각종 국비 공모사업을 전담해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체육회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스포츠 마케팅은 시체육회에서 처음 도입하는 '스포츠 경영' 사례가 될 전망이다. 홍보 부서는 지역 체육인, 체육단체 등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숨은 노고를 조명하는 역할을 맡는다. 종목 단체와 구체육회, 스포츠클럽 지원 기능 강화도 추진된다. 체육인,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지원팀도 신설한다. 시체육회는 24일 제2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조직개편과 직원 승진·전보 인사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인사는 5월 초 조직개편과 동시에 이뤄진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민선 2기 들어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가 직원 사기진작은 물론 조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직이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체육회를 재정비해 시민과 선수를 위한 행정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페퍼스, 아시아쿼터서 미들 블로커 수혈

필리핀 출신 엠제이 필립스 영입...높이 보강 다양한 공격 옵션

광주 A1페퍼스 여자 프로배구단이 취약 포지션인 미들 블로커에 외국인 선수를 수혈했다. 페퍼스는 21일 서울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 2023 KOVO 여자부 아시아쿼터 드래프트에서 5순위 지명권을 얻어 엠제이 필립스(28·Mar-Jana Phillips-필리핀)를 지명했다. 엠제이 필립스는 신장 182cm로 미들 블로커(센터) 포지션이다. 페퍼스는 FA시장에서 아웃 사이드 히터(레프트) 박정아와 채선아를 보강한 데 이어 엠제이 필립스를 영입, 미들 블로커까지 영입했다. 페퍼스는 기존 미들 블로커 최가은과 하혜진 등 2명이다. 엠제이 필립스를 영입함으로써 다양한 공격 옵션이 가능하게 됐다. 1순위 지명권을 얻은 IBK기업은행은 세터 폰폰 게드파르드(30·태국)를 지명했다. 키 173cm의 폰폰은 현재 태국 대표팀 주전 세터로 활약하며 이번 드래프트 최대로 뽑혔다. 2순위 지명권을 얻은 현대건설은 키 174cm의 아웃사이드 히터 위파위 시통(24·태국)을 뽑았다. 3순위 KGC인삼공사는 인도네시아 대표팀 아웃사이드 히터 메가워티 퍼티워티(24)를 선택했다. 한국도로공사는 4순위로 키 180cm의 아포짓 스파이커 타나차 썩삭(23·태국)을 지명했다. 6순위 GS칼텍스는 인도네시아 대표팀 아웃사이드 히터 메디 요쿠(24)를, 7순위 흥국생명엔 일본 공격수 레이나 도코쿠(24)를 각각 선택했다. 이날 지명 순서는 확률 추첨기에 7개 구단 구슬을 10개씩 넣어 무작위로 뽑는 동일 확률 추첨 방식으로 정해졌다.



시페퍼스가 미들 블로커로 지명한 필리핀 출신 엠제이 필립스. (메이스트룩 캡처)

아시아 쿼터는 기존에 팀당 1명씩 계약하는 외국인 선수 제도와 별도로 동아시아 4개국(일본, 몽골, 대만, 홍콩)과 동남아 6개국(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 총 10개국 선수를 대상으로 팀당 1명씩 뽑는 새로운 제도다. 아시아쿼터로 선발된 선수의 연봉은 일괄적으로 10만 달러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안산·최미선, 아시안게임 양궁 국가대표 '명중'

최종 2차 평가전 통과 기보배·이승윤은 고배

안산(광주여대)과 최미선(광주은행 텐텐양궁단)이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양궁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안산은 지난 21일 강원 원주양궁장에서 끝난 2023 양궁 국가대표 최종 2차 평가전에서 여자 리커브 2위를 차지했다. 최미선은 4위로 최종 엔트리에 합류했다. 이번 평가전에는 리커브와 컴파운드 남녀 각 8명의 국가대표가 참가해 상위 4명의 선수에게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3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자격을 부여한다. 도쿄 올림픽 3관왕 안산은 처음으로 아시안 게임에 출전한다. 도쿄올림픽에서 사상 첫 올림픽 양궁 3관왕에 오르며 스타로 떠오른 안산과, 같은 대회에서 여자 단체전 우승을 합작한 강재영이 다시 호흡을 맞춘다. 안산은 "컨디션이 좋지 않은 탓에 선발전에서는 100% 만족할 결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세계선수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안산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내면 한국 양궁 사상 유일한 그랜드슬램인 박성현 전북도청 감독에 이어 두 번째 그랜드슬램이 된다. 양궁 그랜드 슬램은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



지난 21일 강원 원주양궁장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선전한 광주 양궁 선수들. 왼쪽부터 김성은은 광주은행 텐텐양궁단 감독, 기보배·안산·최미선. <광주시양궁협회 제공>

선수권 금메달이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여자 단체전 금메달리스트인 최미선은 7년 만에 국제 종합대회에 도전한다. 최미선은 "어려운 여건에도 팀을 창단하고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은 광주은행 가족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창단팀 만능니이자, 여자대표팀 주장으로서 팀이 더욱 빛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 이후 6년만의 태극마크 탈환으로 기대를 모았던 '2010년대 한국 여자양궁 간판스타' 기보배(광주시청)는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을 펼

쳤으나 8위에 머물렀다. 남자부에서는 김우진(청주시청)이 1위에 올랐고 이우석(코오롱엑스텐보이즈), 김제덕(예천군청), 오진혁(현대제철)이 차례로 2~4위에 포진했다. 2020 도쿄올림픽 단체전 금메달 주역인 김우진, 김제덕, 오진혁은 다시 한번 국제대회에서 호흡을 맞추게 됐고,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단체전과 개인전 은메달리스트 이우석은 5년 만에 메달 도전에 나선다. 기대를 모았던 2016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승윤(남구청)은 3인방의 벽을 넘지 못하고 6위에 머물렀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전남 수영 꿈나무들 전국대회 메달 16개

제주한라배 금 7·은 2·동 7...영암초 문강우·문승우 '2관왕'



제18회 제주한라배 전국수영대회에서 맹활약한 영암초등학교 선수들. <전남도체육회 제공>

전남 수영 꿈나무들이 제18회 제주한라배 전국수영대회에서 모두 16개 메달을 따냈다. 23일 전남수영연맹에 따르면 최근 제주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전남지역 수영 꿈나무들이 금메달 7개, 은메달 2개, 동메달 7개를 획득했다. 영암초 선수들이 맹활약했다. 문강우(6년)는 남초부 배영 50m, 100m에서 각각 31초 56, 1분 08초 00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 초등부 배영 2관왕을 차지했다. 문승우(4년)도 여자유년부 평영 50m, 100m에서 각각 38초 39, 1분 25초 96으로 금메달 두 개를 차지했다. 김수민(6년)은 배영 50m와 배영 200m에서 각각 33초 45와 2분 33초 93의 기록으로 동메달, 금메

달을 따냈다. 이아람(6년)은 자유형 50m에서 28초 92로 동메달, 김윤성(4년)은 접영 50m, 100m에서 각각 35초 50과 1분 17초 80의 기록으로 동메달 2개를 손에 넣었다. 장성사창초 박별(6년)은 자유형 400m에서 4분 54초 73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같은 학교 정근민(4년)은 남자유년부 자유형 100m에서 1분 07초 43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여수현려초 최하랑(6년)은 남초부 평영 50m와 100m에서 각각 35초 47, 1분 17초 07로 동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나주라온초 이시후(4년)도 남자유년부 평영 50m와 100m에서 각각 40초 29로 동메달, 1분 24초 29로 은메달을 수상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쇼트트랙 황대현 1년 만에 대표팀 복귀

국가대표 2차 선발전 종합 1위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황대현(강원도청)이 1년 만에 태극마크를 다시 달았다. 황대현은 23일 충북 진천선수촌 실내빙상장에서 열린 2023-2024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2차 선발전 마지막 경기 남자 1000m 결승에서 1분 22초 793의 성적으로 김태성(단국대·1분 22초 685)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1, 2차 선발전 6개 종목 합산 랭킹포인트 89점으로 종합 순위 1위에 올랐다. 황대현은 대표팀에 자동 승선한 박지원(서울시청), 선발전 종합 2위 김건우(스포츠포토·랭킹포인트 68점)와 차기 시즌 국제대회 개인전·단체전 우선 출전 자격을 얻었다. 황대현은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는 코로나 19 후유증으로 기권해 2022-2023시즌 국가대표로 뛰지 못했고, 올해 국가대표 1차 선발전 남자

500m와 남자 1000m에서 연이어 넘어지는 불운이 겹쳐 대표팀 승선이 어려워 보였다. 그러나 2차 선발대회 남자 1500m 1위, 남자 500m 2위에 오른 데 이어 남자 1,000m에서도 두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선발전 종합 3~4위를 차지한 서이라(화성시청·60점)와 장성우(고려대·50점·이상 랭킹포인트)는 국제대회 단체전 우선 출전 자격을 얻었다. 여자부에선 김길리(성남시청), 심석희(서울시청), 박지원(전북도청)이 1000m 1, 2, 3위를 차지하고 종합 순위에서도 나란히 1~3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존 워 4
- 2관 리바운드
- 3관 스페의 문단속, 겨울 속 외판 성
- 4관 존 워 4, 오디션, 65
- 5관 스페의 문단속
- 6관 킬링 로맨스
- 9관 존 워 4
- 7관 씨네커플 렌필드, 보이지 않아
- 8관 씨네커플 더 퍼스트 슬램덩크, 귀를 기울이면, 라이스보이 슬립스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2023년 4월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

**국악이 있다 전통을 잇다**

2023년 4월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

**2023년 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3-04-01(토) ~ 2023-04-30(일)  
매주 수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